

- 전시 유물 중 701점은 계량과 표준에 대한 역사와 중요성, 도량형의 시대성, 학술적 가치 등을 인정받아 대부분 '국가표준 도량형 유물'로 문화재청에 등록되어 있다.
 - 그 중에는 조선 시대에 우시장 등에서 가축을 사고 팔 때 사용 하였던 '소머리 가지자'가 있다. 당시에는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저울이 없어 소머리 가지자로 소, 말, 돼지 등 가축의 머리를 측정하여 가격을 흥정하였다.
 - 또한, 80년대까지 사용되었던 대저울도 여러 종류 전시되어 있다. 대저울은 저울대에 눈금을 매기고 물체의 무게에 따라 추를 움직여 평형을 이루었을 때 무게를 알아내는 저울이다. 약재나 금·은 등의 가벼운 무게부터 곡물·야채 등과 같은 생활용품, 쌀가마·보리가마·돼지 등 무거운 물건까지 측정하는데 널리 사용되었으나, 기계식, 전자식 저울에 밀려 요즘에는 보기 어렵게 되었다.
- 온라인 계량박물관은 관람정보, 유물자료실, 일반자료실 및 열린마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계량유물 검색과 함께 생활 속 계량기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꾸몄다. 국가기술표준원은 오프라인으로는 현장체험을 통해 조상들이 지냈던 삶의 지혜와 계량의 슬기를 배우고 그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도록 초·중·고 학생들의 단체 관람도 적극 유치할 계획이라고 한다.

붙임자료 :

1. 법률1호 도량형법(문서)
2. 소머리 가지자
3. 온라인 계량박물관 홈페이지